

# 희망과 좌절의 기록, 1957년 『詩刊』 연구\*

김소현\*\*

## <目 次>

1. 서론
2. 1957년 『詩刊』 창간의 배경과 의미
3. 1957년 『詩刊』, 지식인의 희망과 좌절
4. 1957년 『詩刊』의 문제작
5. 결론

## 1. 서론

중국현대사에서 1957년만큼 전, 후반기의 상황이 명백히 구분되는 해도 드물 것이다. 1957년의 상황은 권력에 의해 유린당할 수밖에 없는 지식인의 운명을 극적으로 보여준다. 7월 이후의 ‘反右派鬪爭’은 사회주의 수립 이후 지속된 공산당의 권위 확립과 지식인 통제의 되풀이처럼 보이지만, 문화대혁명의 불길한 前兆로서의 거의 모든 요소를 내함 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요한다.

‘雙百運動’이 비극적으로 마감된 것도 1957년이였다. 5.4의 사상해방과 자유를 연상케 하는 분위기 속에서 적극적인 의견 개진과 비판을 고무했던 권력의 태도 변화는 지식인들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왔다. 반우파투쟁은 중국 사회의 자유화를 지향했던 쌍백운동을 ‘사악한 무리를 동굴로부터 유인(引蛇出洞)’하기 위한 ‘공개적 계책(陽謀)’이라는 수사로 정당화했지만, 중국식 발전 방식을 둘러싼 당

\* 이 논문은 2013년도 중견연구자지원사업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3S1A5A2A01018002).

\*\* 동아대학교 인문과학대학 중국어학과 교수

내부의 분열과 毛澤東의 지배 의지 실현이라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에 맥락이 닿아 있었다. 그리고 1957년은 이후의 '大躍進運動'과 그 실패로 인한 조정 정책, 대중 동원 방식에 의존한 문화대혁명의 발동이라는 역사적 과정 속에서 부단히 그 원형을 찾을 수 있다.

중국현대정치사나 문학사에서 반우과투쟁과 지식인 수난의 해로 기술되는 1957년은 신 중국 수립 이후 최초의 시 전문지 『詩刊』이 창간된 해였다. 쌍백방침의 관철을 위한 문예 실천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詩刊』 창간은, 1957년을 전후한 중국 사회와 지식계의 분위기를 파악하는 데 중요한 사료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 쌍백운동이 무산되면서 공산당의 권력 독점은 더욱 강화되었고 예술과 문학에 대한 마오주의 이론의 지배력 또한 절대화 되었다. 謝冕은 1949년 이후 중국당대시를 특징짓는 세 가지 문제로 정치를 위한 시적 복무, 시인 개성의 쇠퇴로 인한 서정 형식의 유형화·일반화, 다양화를 허락하지 않는 형식적 일원화 등을 거론한 바 있는데<sup>1)</sup>, 1957년 『詩刊』은 중국당대시의 문제들이 구체화되는 과정을 효과적으로 조감하게 한다.

1957년 『詩刊』을 분석한 기존의 연구 성과는 아직 많지 않다. 중국 내에서의 시 간행물 연구는 주로 1949년 이전에 집중되고 있는데, 당국의 정치적 개입이 간행물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었던 49년 이후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데는 학술적 자유에 대한 전반적인 공감대가 필요했기 때문일 것이다. 석박사 학위논문에서 시작된 중국의 『詩刊』 연구<sup>2)</sup>는, 대체로 창간부터 정간(1965년)까지 8년에 이르는 『詩刊』을 시기별로 개괄하고 있어서 『詩刊』의 역사적 의미와 내용을 파악하는 데 용이하다. 기존의 『詩刊』 연구 중에서 본 연구의 관점과 관련된 성과로는 巫洪亮의 「夾縫生存中的艱難“言說”—1957: 『詩刊』“編後記”話語方式微觀透視」(『嘉應學院學報(哲學社會科學)』, 第28卷 第1期, 2010)를 꼽을 수 있지만 巫洪亮의 연구는 주로 『詩刊』 「편집후기」의 수사적 측면을 주목하고 있다. 連敏의 「特定年代的詩歌生產—『詩刊』(1957-1964)作為研究對象的

1) 謝冕, 『浪漫星雲』, 廣東人民出版社, 1999년.

2) 連敏, 『詩刊』(1957-1964)研究』(首都師範大學, 博士論文, 2007), 常慧敏, 『位移: 1957年 至1964年『詩刊』詩歌在文化弱勢中的變異抉擇』(山東大學, 碩士學位論文, 2006)

提出與思考」(『中國詩歌研究』, 2011)와 「『詩刊』의創立與刊物品格的建構」(『南方文壇』第5期, 2006)는 자신의 학위논문과 연계적인 연구 관점과 내용을 가지고 있으며, 鄭翔의 「『詩刊』(1957-1964)의基本內容和意識形態性研究」(『名刊觀察』第4期, 2009)도 이와 유사한 관점에서 진행되었다. 王秀濤의 「“百花時代”文學期刊改革的歷史考察」(『揚子江評論』第4期, 2011)은 쌍백운동 당시 문학 간행물의 역사적 의미와 『詩刊』을 비교하고 있다.

『詩刊』 연구는 중국에서도 비교적 최근에 주목 받기 시작한 주제이며 국내의 연구 성과는 미미하다. 중국에서의 『詩刊』 연구는 주로 1957년부터 1964년까지의 비교적 광범한 시기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창간부터 정간까지의 개괄적 역사를 조감하기 용이한 반면 중국 사회의 극적 전환이 전개된 쌍백운동 전후의 상황을 파악하는 데는 아쉬움이 따른다. 본 연구는 기존의 성과를 중심으로 『詩刊』 창간을 전후한 중국 사회의 전반적 분위기, 1957년 『詩刊』의 특징과 문제작 등을 살펴봄으로써 당시 중국 지식인들이 처한 곤경과 문예의 위기를 파악하고자 한다. 본 연구 과제의 수행으로 국내 중국당대시 연구의 주제가 보다 확장되고 진전된 후속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

## 2. 1957년 『詩刊』 창간의 배경과 의미

1957년은 ‘1차 5개년계획’(1953년~1957년)의 성공이 예감되는 시점이었지만 곧이어 시작될 ‘2차 5개년계획’을 둘러싼 당내 갈등이 표면화되는 시점이기도 했다. 1차 5개년계획의 성공 이면에는 농업 생산물의 국가적 전유를 기반으로 한 농촌과 농민의 희생이 존재했다. 소련 기술과 방식에 전적으로 의존한 1차 5개년 계획의 문제를 해결하고, 중국식 사회주의 건설이라는 새로운 길을 개척하기 위해서는 지식인들의 협조가 필수적이었다. 그러나 胡風 反革命集團 사건 이후 지식계의 자발적 의지는 심각한 정도로 저하되어 있었다. 당은 지식인을 노동계급의 일부라고 천명하고, 지식인의 모호한 계급적 상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다.<sup>3)</sup>

하지만 毛澤東은 소련식 발전모델에서 강조되는 전문성에의 요구가 정치 현실로부터 당과 대중을 분리시키고 있으며, 당 내부의 관료주의를 심화시키는 근본 원인이라고 생각했다. 毛澤東은 1956년 5월 최고국무회의에서 쌍백방침을 제기하면서<sup>4)</sup> 기존 관료기구를 거치지 않고 사회를 변화시킬 대중운동의 일부로 지식인을 이용하려 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당 관료들은 쌍백방침에 부정적이었다. 1956년 9월 제8차 당대회는 2차 5개년계획을 승인하고 '毛澤東思想'을 黨章에서 삭제하기로 결정했다. 집단지도 원칙이 더욱 강화되고 중국 사회발전의 중요한 자산으로 여겨졌던 당 지도부의 화합에도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sup>5)</sup>

1957년 2월 말 毛澤東의 연설 「인민 내부의 모순을 올바르게 처리하는 문제에 관하여 關於正確處理人民內部矛盾的問題」를 계기로 쌍백운동은 극적으로 재개되었다. 이 연설은 제8차 당대회 이후의 권력 약화와 보수적인 당 기구에 대한 毛澤東의 불만이 반영된 것이었다. 그에게 가장 시급한 일은 관료들의 힘을 깨는 것이었다.<sup>6)</sup> 4월 말의 '整風運動'으로 쌍백방침은 더욱 구체화 되었다.

지식인의 적극적인 쌍백운동을 가로 막는 것은 당 관료들의 적대감이었다. 毛澤東이 아무리 비판을 장려해도 일상 업무에서 부딪치는 간부들은 지식인들의 비판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다. 毛澤東은 당내에 만연한 관료주의, 주관주의, 종파주의의 폐단을 시정할 것을 강조했다. 이제 개조를 받아야 하는 쪽은 당내 인사들이었다. 1957년 5월 1일자 『人民日報』가 정풍운동의 출발을 알리면서 불만의 목

3) 周恩來, 「關於知識分子問題的報告」, 『人民日報』, 1956年 1月 14日.

4) 中共中央宣傳部長 陸定一가 「百花齊放, 百家爭鳴」이라는 제목의 연설을 통해 쌍백방침을 설명했고, 6월 13일자 『人民日報』에 게재되었다.

5) 로드릭 맥과커 엮음, 김재관 정해용 옮김, 『중국현대정치사』, 서울: 푸른길, 2012, 115-116쪽 참조.

6) 毛澤東의 연설은 그가 도입한 두 가지 새로운 명제 때문에 위험한 정치적 의미를 지니게 된다. '지도자와 피지도자' 사이에 모순이 존재하며 당은 오류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는 명제와 계급투쟁은 사회주의 하에서도 계속되며 주로 사상투쟁의 형식을 띤다는 관점이었다. 이로써 '계급투쟁'은 사회계급 간의 투쟁이 아닌 계급이데올로기 간의 투쟁문제가 되었고 올바르게 표현할 수 없는 사상을 표현하는 자는 '계급의 적'으로 비난받을 수밖에 없다. 공산당과 당 고위 지도자들 역시 부르주아 이데올로기의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계급투쟁이 '이데올로기의 영역'에서 나타난다면, 당내에 존재하는 사상 정책상의 갈등은 계급갈등으로 해석될 수 있었다. 모리스 마이스너 지음, 김수영 옮김, 『마오의 중국과 그 이후』, 서울: 이산, 2004, 245-248쪽 참조.

소리는 5, 6월에 급류를 형성했다. 『光明日報』 편집장 儲安平, 교통부장 章伯鈞, 삼림공업부장 羅隆基 등 '민주당파' 인사들이 비판의 선두에 섰다.<sup>7)</sup> 쌍백운동 초기의 기세는 5.4의 해방과 자유를 연상케 할 정도였다. 지식인들은 사소한 일상의 불만부터 다양한 사회 문제에 이르기까지 매우 광범하고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사회주의 법제를 시행하고 언론·출판·거주의 자유를 허용하라고 요구했으며, '公民 人身의 자유 보장'이라는 헌법상의 권리를 주장했다. 지도자와 피지도자 간의 불평등, 도시와 농촌의 격차, 도시 프롤레타리아트 사이에 분열을 조장하는 새로운 임금차별제도 등에 대한 비판은 毛澤東의 관점과 일치하는 것이기도 했다.

쌍백방침은 문학 간행물을 둘러싼 환경 변화에도 폭발적으로 작용했다. 1956년 말 中國作協은 '문학 간행물 공작 회의 文學期刊工作會議'를 소집하여 문학 간행물이 어떻게 쌍백방침을 관철하고 문학 사업을 추동할 것인지 토론했다. 이 회의에서는 문학 간행물이 자유와 평등을 경쟁해야 하며 간행물에 일정한 자주권과 개성이 허락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되었다.<sup>8)</sup> 또한 1957년 1월부터 전국 각 문학 간행물은 기관 간행물의 명의를 취소하고 문예단체는 소속 간행물의 정상적인 편집 작업에 개입하지 않으며, 전국 각 간행물은 상호 비평할 수 있고, 간행물

7) 쌍백운동 초기 이들이 핵심적 역할을 했던 것은 결코 우연이라 할 수 없었다. 羅隆基, 王造時, 儲安平, 張君勱 등은 일찍이 자유주의사상을 중국에 퍼뜨린 인물들이었다. 중국의 자유주의 운동은 1940년대에 급성장했다. 1941년에 중국민주정치단체동맹(약칭 민주동맹)이 결성되면서 자유주의 운동에 리더가 출현하고 제도적 보장이 생기게 되었다. 1945년의 민주동맹 1차대회는 민주동맹이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닌 민주 그룹"이며 그 신성한 사명은 "중국을 정통 민주주의 국가로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 羅隆基가 기초한 이 자유주의 대한장의 중심적인 이념과 구조는 사회민주주의였다. 이 노선은 정치적으로는 영미식 의회민주주의의 정치를 시행하고 경제적으로는 소련식 사회주의적 평등 원칙을 참조하는 것이었다. 민주동맹의 중간노선은 자유주의와 사회주의의 원칙을 성공적으로 결합시켰지만 국공분열과 내전으로 실행의 기회를 얻지 못했다. 許紀林 지음, 송인재 옮김, 『왜 다시 계몽이 필요한가』, 파주: 글항아리, 2013, 269-279쪽 참조.

8) 1956년 11월 21일부터 12월 1일까지 北京에서 47명의 편집부 대표가 참여하는 회의가 개최되었다. 이 회의를 준비한 郭小川의 일기에 따르면, 中國作協은 4월부터 이 회의를 준비하고 토론했다. 9월에 上海, 武漢 등지를 방문하여 좌담한 郭小川은, 당시 편집자와 작가들이 간행물의 내용이 천편일률적인 점, 간행물의 지위가 명확하지 않은 점, 그리고 제재와 형식을 절대화하고 보고문학을 절대화하며 時代感과 시대 '따라잡기'를 절대화하는 데 대한 불만을 토론했다고 한다. 『郭小川全集』, 桂林, 廣西師範大學出版社, 2000, 제11권, 269-279쪽 참조.

은 창조력을 발휘할 수 있는 편집부와 학술적으로 자유로운 논쟁의 분위기, 엄숙한 공작 기풍을 가져야 함을 강조했다.<sup>9)</sup> 이 회의는 간행물 개혁을 위한 정책적 기초가 되었고, 1957년의 개혁운동으로 『詩刊』 『星星』 『新港』 『收穫』 『延河』 『雨花』 『東海』 『園地』 등 수십 종에 달하는 새로운 간행물이 출현했다. 특히 시단의 분위기가 고무되었다. “시는 소설이나 희극보다 민첩하게 사회적 투쟁을 반영할 수 있다. …… 장기간 붓을 놓았던 시인들, 심지어 5.4시기의 시인까지 노래하기 시작했고, 각종 풍격과 내용의 시들이 출현했다. 신문 잡지 등에도 시가 대량으로 발표되었고 특집호가 간행되어 이제 막 뜻을 올린 사회주의 개조의 분위기에 호응하는 듯했다. 이때야말로 시의 시대였다.”<sup>10)</sup>

『詩刊』의 창간은 상서로운 조짐, 즉 문예계가 숙박에서 벗어나 숨통이 트일 것이라는 신호로 간주되었다.<sup>11)</sup> 문학 간행물 공작 회의 이후 행정적 색채를 탈피하고 고유의 특색을 부각하기 위해 각 간행물이 진행한 改名<sup>12)</sup>이나 원고 심의, 작품 선정 및 조직 기준 변경 등은 『詩刊』에도 영향을 주었다. 『詩刊』은 主編 臧克家를 포함한 편집 위원<sup>13)</sup> 전체가 非黨員이었지만 편집부의 독립성 원칙을 옹호했다. 게재 작품의 “수준 유지를 최우선으로 하였고 맹목적으로 유명인을 떠받들거나 무명 또는 젊은 시인을 경시하지 않았다. 편집 배열은 내용의 질적 수준에 근거하였으며 작가의 인지도에 따라 순서를 정하지 않았다. 저명 시인이나 문예계 영도자가 추천한 작품이라도 질적으로 불충분하면 의견을 제시하거나 수정을 상의하였으며 돌려보내기도 했다.”<sup>14)</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詩刊』 창간은 쌍백방침 실현이라는 당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일 수밖에 없었다. 새로운 시 陣地의 필요에 관한 詩友들의 논의나 徐遲의 전문

9) 「文學期刊編輯工作會議, 要求認真貫徹百花齊放, 百家爭鳴的方針」, 『人民日報』 1956年 12月 4日.

10) 鄒荻帆, 「讀『詩刊』」, 『文藝報』 1957年 4月 21日.

11) 呂劍, 「未完的回憶」, 『詩刊』 1976年 第1期.

12) 『山東文藝』는 『前哨』로, 『山西文學』은 『火花』, 『西南文藝』는 『紅岩』, 『貴州文藝』는 『山花』, 『河北文藝』는 『蜜蜂』, 『河南文藝』는 『新苗』 등으로 개명했다. 洪子誠, 『1956: 百花時代』, 山東教育出版社, 1998, 134쪽 참조.

13) 1957년 『詩刊』 편집부는 副主編 徐遲, 嚴辰, 編委 沙鷗, 呂劍, 袁水拍, 田間, 艾青 등으로 구성되었다.

14) 白婉清, 「『詩刊』憶舊思念」, 『詩刊』, 1997年 第1期.

간행물 창간 건의<sup>15)</sup>가 『詩刊』 창간의 주요 동인이었음은 분명하지만, 1949년 이래로 문학 간행물이 담당해야 했던 '기관 간행물 機關刊物'로서의 기본 임무, 즉 주류의식형태를 선전하고 정치사상 투쟁을 담당한다는 원칙을 벗어날 수는 없었다. 편집 위원들은 단순히 원고를 읽거나 취합하는 사람이 아니라 고도의 사상성을 갖추고 是非와 輕重을 판단하여 무엇을 옹호하고 고취할 것인지, 무엇을 선전하고 반대할 것인지를 책임져야 했기 때문<sup>16)</sup>이었는데, 이 점에서 『詩刊』은 처음부터 독립적일 수 없었다.

사실 『詩刊』은 中國作協 직속 간행물이라는 점과 당 지도자들의 관심에 힘입어 중국의 대표적 시 전문 간행물이라는 위치를 확고히 할 수 있었다. 毛澤東은 『詩刊』 창간에 강력한 정치적 환경을 제공했을 뿐 아니라 특별한 관심과 지지를 보낸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毛澤東이 『詩刊』 창간호에 보낸 舊體詩詞 18首와 「시에 관한 편지 關於詩的一封信」은 신생 간행물 『詩刊』의 특별한 위상을 대변했다. 그것은 『詩刊』과 毛澤東 문예관의 태생적 관련성을 입증하는 것이기도 했다. 창간호 「편집후기」는 “이 편지는 우리의 시 운동과 시 창작에 극히 중요하다”, “우리는 이 詩詞와 편지가 우리의 생활과 투쟁, 우리의 문학사업 가운데 발생시킬 영향이 심각하고 측정하기 힘든 것임을 확신한다.”고 강조했고 2, 6, 12월호 「편집후기」 역시 이 '사건'의 의미를 지속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이는 毛澤東의 권위에 의존하여 『詩刊』의 입지를 강화하려는 계산임에 분명했지만 이 같은 안전장치의 확보는 어떤 편집자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중요한 정치적 행위였다. 창간부터 『詩刊』이 권위 있는 시 간행물이 될 수 있었던 것도 정치권력과의 이 같은 내적 연계 때문이었던 바, 편집권을 포함한 모든 의사결정에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는 시스템 속에서 권력자의 지지는 무엇보다 확실한 간행물 생존의 근거였다. 전반적 물자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계획 경제 하에서, 1만 부로 제한되었던 창간호 발행량이 5만

15) 1956년 2월 中國作協 제2차 이사회에서 徐遲는 『詩刊』 창간을 건의했고, 사전에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았던 이 발언에 참석자들은 박수로 호응했다. 이후 徐遲는 作協黨組 책임자 邵荃麟과 劉白羽를 찾아가 『詩刊』 창간을 승낙 받았다. 周良沛, 「又是飛雪兆豐年—憶徐遲於『詩刊』創刊前後」, 『難忘徐遲』, 上海書店出版, 1997. 連敏, 「『詩刊』的創立與刊物品格的建構」(『南方文壇』第5期, 2006), 91쪽 재인용.

16) 丁玲, 「爲加強我們刊物的思想性, 戰鬥性而鬭爭」, 『文藝報』第5卷 第4期 참조.

부로 늘어난 것도 毛澤東의 전폭적 지원 덕분이었다.<sup>17)</sup> 『詩刊』 편집인들이 毛澤東의 지지를 지속적으로 거론한 것은 '新詩'에 대한 毛澤東의 관점을 의심의 여지 없는 '진리'로 만들기 위함이었으며, 권력자의 '진리' 생산에 공헌할 때 간행물은 더 많은 물질적 '지지'를 획득할 수 있었다.<sup>18)</sup> 1949년부터 1966년 사이 편집 위원이 빈번하게 교체된 『文藝報』의 사례나 창간되자마자 게재 작품의 사상성과 건전성 문제로 편집 위원 교체 및 비판에 직면해야 했던 『星星』의 사례를 타산지석 삼을 수밖에 없었던 『詩刊』은, 권력주체의 문화 행위를 과장하고 찬양함으로써 위협 요소를 피해가고자 했던 것이다.

### 3. 1957년 『詩刊』, 지식인의 희망과 좌절

1956년부터 1957년 사이의 간행물 개혁과 조정은 특수한 정치적 시기의 산물로, 정치 환경에 변화가 생기면 그것은 지속될 수 없었다. 쌍백방침으로 형성된 '百花時代'의 자유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었다. 문학 간행물 공작 회의는 개혁을 주장했다지만 "백화제방, 백가쟁명"은 결코 사상투쟁의 기치를 거두어들이라는 것이 아니라 더 높이 들어 올리라는 것이다. 우리의 간행물은 선진적 입장과 당의 입장 위에서 선진사상, 선진사물, 선진예술을 선전하는 진지가 되어야 한다. '爭鳴'인 이상 반드시 '싸워야[爭]'한다. 난폭한 방식이 아니라 논리를 통해 낙후한 사상, 낙후한 사물, 낙후한 예술과 투쟁해야 한다<sup>19)</sup>는 것이었다. 1951년부터 1952년 사이의 사상개조운동과 1955년 胡風 反革命集團사건을 경험한 이래로 지식인들은 언제나 정치적 변화의 가능성과 그 대기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멀지 않은 과거의 뼈아픈 경험에도 불구하고 사회와 문단에 불어줄 훈풍에 대한 기대는 당시의 행간과 자구에 녹아 있다.

17) 臧克家, 「老『詩刊』瑣憶」, 『詩刊』, 1994年 第5期.

18) 洪子誠, 『中國當代新詩史』,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2005, 20-24쪽.

19) 「辦好文學期刊, 促進百花齊放, 百家爭鳴」, 『文藝報』, 1956年 第23期.

드디어 창간호가 나왔다. 우리는 좋은 시를 읽고 싶어 하는, 삶을 노래 하고 반영한, 잘 다듬어진 시를 읽고 싶어 하는 독자들의 요구를 잘 알고 있다. 이제부터 우리는 전국의 시인들을 단합시키고 격려하여 훌륭한 작품을 쓰게 함으로써 독자들의 바람을 충족할 것이다.<sup>20)</sup>

창간호 「편집후기」는 『詩刊』의 방향과 성격을 집약적으로 보여준다. 시인들이 ‘좋은 시’를 쓰도록 독려하고 독자들이 ‘좋은 시’를 읽게 하는 것이야말로 『詩刊』의 사회적 책무이자 모든 시인의 바람이었다. 신 중국 수립 이후의 경직된 분위기 속에서 소외와 부자유를 감내하던 지식인들은 쌍백방침에 조심스럽게 반응하면서 『詩刊』의 기능성에 기대를 품기 시작했다. 편집부의 노력과 시인들의 호응<sup>21)</sup>, 정치적 기준으로 작가와 작품을 제한하지 않으려는 시도는 『詩刊』에 대한 보편적 지지와 관심을 불러왔다. 창간호 「편집후기」는 편집부 전체의 문예관을 대변하는 것으로 이를 기초로 과감한 작품 선정을 시도할 수 있었다.

창간호에는 원로 시인들의 작품과 청년 시인의 작품이 함께 수록되었다. 艾青은 新作 「칠레 해변에서 在智利的海岬上」를 발표했고, 馮至는 詩劇 「서북시초 西北詩鈔」를 발표했다. 袁水拍와 戈寶權이 번역한 파블로 네루다의 시 「국제부대가 마드리드에 도착했네 國際縱隊來到馬德里」와 「내 조국에서 사는 것은 봄날이네 在我的祖國是春天」가 수록되었다. 창간 초기 『詩刊』은 “각 유파 시인들의 원고 게재라는 측면에서 새로운 상황을 개척하고자 했다.(……) 公劉의 「늦게 핀 장미 遲開的薔薇」는 위험을 무릅쓰고 발표한 것이었다. 당시에 ‘애정’은 금지구역이었다. 張光年에게 郭沫若에 관한 평론을 써달라고 요청하고, 陳夢家에게 ‘讀徐志摩’의 투고를 약속 받았다. 徐志摩에 관한 주제는 금기를 범하는 것이었다. 신인에게 관심을 갖는 정도가 아니었다. 徐遲가 呂亮耕의 시집 서문에서 말했듯이 우리는 ‘가라앉은 배[沈船]’를 인양하고 싶었다……”<sup>22)</sup>라는 呂劍의 회고는 초기 『詩

20) 創刊號現在出版了。我們完全了解，讀者要求讀到好詩，要求讀到歌唱和反映生活的詩，精煉的詩。我們希望今後能够團結、鼓舞全國的詩人們來創作出優美的作品，以滿足讀者的渴望。『詩刊』創刊號，「編後記」。

21) 臧克家是 1956년 봄부터 穆木天, 黃藥眠, 何其芳, 馮至, 汪靜之, 馮雪峰, 蕭三 등에게 원고를 청탁했고 老舍, 王統照, 冰心, 陳夢家 등이 투고를 약속했다.

22) 呂劍, 「未完的回憶」, 『詩刊』 1976年 第1期。

刊』의 과감성과 열정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1957년 상반기 동안 『詩刊』은 쌍백의 구호 하에 제한적이지만 의미 있는 성취를 보여주었다. 많은 시인들이 독자적인 감수를 표현하면서 정치와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려 했고, 초월적 사고와 시의 독립적 가치를 확보하고자 노력했다. 『詩刊』 5, 6월호는 창간 당시의 편집 방향이 이상적으로 실현된 사례라 할 수 있다. 5월호에는 반우파투쟁이 전개되면서 심각한 공격을 받았던 穆旦의 「장송곡 葬歌」, 杜運燮의 「해동 解凍」, 艾路의 「서정 抒情」 등이 게재 되었고, 정치색이 거의 없는 서정시도 게재되었다. 蔡其矯의 「바다 大海」, 陳夢家の 「여행 시 세 편 紀遊三首」, 張覓의 「수상 촌락 水上村落」 등이다.

쌍백운동의 부진을 해소하기 위해 전개된 1957년 4월의 整風運動에 대한 시적 호응도 흥미롭다. 袁水拍의 「풍자시 세 편 諷刺詩三首」은 관료주의와 교조주의를 비판하고 쌍백 방침을 고취하는 시로, 당시의 자유와 다양성을 짐작케 한다. 「풍자시 세 편」중 ‘배추 팔고탕 白菜八股湯’은 제목의 풍자적 의미만이 아니라 풍자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동원한 丁聰의 삽화 5컷이 인상적이다. 5월호에는 臧克家에게 보내는 서신 형태로 老舍가 쓴 「시를 이야기하다 談詩」라는 글이 수록되었다. 이 글에서 老舍는, 시단 내부에 존재하는 舊體詩, 新詩, 通俗歌曲 간의 창작 우위 논쟁을 백화제방의 관점과 방법으로 해소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6월호의 편집도 이례적이었다. 첫 부분에 王統照, 陳夢家, 朱光潛, 謝冰心 등의 詩論 네 편을 수록하고 있다. 서신 형식의 「克家에게 致克家」에서 王統照는 시의 진실성과 내적 충실(眞體內充), 음악적 효과 등을 통해 당시 新詩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바로 이어 게재된 陳夢家の 「이야기와 기록 談後追記」 역시 新詩 창작의 몇 가지 문제를 거론하고 있다. 그는 詩語의 부단한 精練과 음악적 조화를 강조하고 특정 단어나 표어 구호화 된 언어 사용만으로 정치적 열정을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창작 태도를 경계한다. 朱光潛은 「유치한 바람 一個幼稚的願望」에서 산문과 구별되는 시의 음악성을 거론하고, 謝冰心은 진지하고 농후한 시적 정감과 낭송에 적합한 운율에 관한 문제를 「서고 단상 西郊短簡」에서 거론하고 있다. 이들은 모두 시의 ‘음악성’에 주목하고 있는데, 본격적인 이론의 전개는 아니었지만

당시 중국 시가 직면한 문제에 대한 보편적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 또 6월호에는 汪曾祺의 「이른 봄 早春」이 게재되었고, 정치적 선명성과는 거의 무관한 徐遲, 顧工 등의 작품이 소개되었다. 쌍백운동이 반우파투쟁으로 급선회 하면서 『詩刊』 7월호의 편집 방향도 달라지지만 상황의 긴박성과 예측 불가능성으로 인해 ‘반우파투쟁특집’을 표방한 7월호 이후 변화의 양상이 두드러진다.

쌍백운동 과정에서 지식인들의 일상적인 불평은 점차 毛澤東의 예상을 뛰어넘는 근본적인 사회 비판으로 확대되었다. 당 관료들이 ‘새로운 계급’을 형성하고 있으며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부채질하고 있다는 비판, “우리는 당의 영도가 필요하지만 당이 독단적으로 결정을 내리는 것을 결연히 반대한다”는 주장에 당 관료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공산당 스스로가 사회주의의 전제와 혁명의 이상을 배신했다는 비난은 더욱 위험한 것이었다. 그것은 단순히 공산당의 作風이나 관료주의, 주관주의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공산당 자체에 대한 문제 제기였기 때문이다. 비판론자들의 평등주의적이고 反관료주의적인 목표는 毛澤東의 동의를 받을 수 있었지만 공산당 자체에 대한 회의나 민주주의 제도의 수립 요구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것이었다.<sup>23)</sup>

1957년 5월 중순부터 당 지도부는 규제받지 않은 ‘백화제방, 백가쟁명’이 용인할 수 없을 정도로 지식인에 대한 통제를 약화시키고 있다고 판단했다.<sup>24)</sup> 6월 8일자 『人民日報』 사설 「무엇 때문인가? 這是爲什麼?」는 쌍백운동의 종말과 반우파투쟁 개시의 신호탄이었다. 사설은 ‘右派’가 사회주의와 공산당을 공격하기 위해 자유를 남용하고 있다면서 이미 제기된 비판을 반박하고 무정부상태가 초래할 위험성을 경고했다. 이제 쌍백운동을 계기로 정체를 드러낸 계급의 적들에 맞서기 위한 투쟁을 벌여야 할 시점이 되었다는 것이다.<sup>25)</sup> 쌍백운동의 결정적 출발점이 되었던 毛澤東의 연설 「인민 내부의 모순을 올바르게 처리하는 문제에 대하여」(2월본은 정식 출판되지 않은 상태)는 비판자들을 억압하는 수단으로 다시 활용되었

23) 로드릭 맥파커 엮음, 김재관 정해용 옮김, 『중국현대정치사』, 서울: 푸른길, 2012, 124-125쪽 참조.

24) 위의 책 126쪽.

25) 모리스 마이스너 지음, 김수영 옮김 『마오의 중국과 그 이후1』, 서울: 이산, 2004, 258-259쪽 참조.

다. 毛澤東 자신이 주장했던 쌍백운동의 필요는 이제 반우파투쟁의 필요로 전환해야 했고, 그것을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앞선 주장에 대한 수정이 불가피했다. 「인민 내부의 모순을 올바르게 처리하는 문제에 대하여」는 수정본의 형태로 6월 19일자 『人民日報』에 게재되었다. 수정본은 발표 당시의 일부 내용이 삭제되었고, '자유로운 의견 개진'을 위해 여섯 가지가 '前提'되어야 한다면서 '香花와 毒草'를 구별할 것을 강조했다. 그러나 여섯 가지 '전제'는 너무 모호해서 무한한 해석이 가능했다.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존재는 당뿐이었다.<sup>26)</sup>

毛澤東의 고무에 힘입어 진심을 표출했던 당내 지도자와 지식인들이 반우파투쟁의 공격 대상으로 지목되었다. 정계와 언론계, 지식계 전반으로 확산된 숙청은 55만 명에 달하는 우파를 만들어 냈다. 이들 우파에게는 치욕적인 자아비판과 자학적 고백이 강요되었고 이 과정은 지식인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투쟁 기간의 심리적 압박은 수많은 자살 사건으로 이어졌으며, 육체노동을 통한 지식인 정신 개조를 위해 대규모 下放이 단행되었다.

우리는 전국 각지의 시인들이 적극적으로 전투에 뛰어들어 힘찬 노래 소리와 뜨거운 풍자로 더욱 맹렬하게 전투하기를 희망한다. 『詩刊』의 지면이 이 위대한 정치투쟁에 제공되기를 희망한다. 우리는 시인들과 청년 가수들이 우파에 반격을 가하는 풍자시와 정치시를 보내오기를 희망한다. 공산당을 노래하고 인민공화국을 노래하며 나날이 발전하는 우리의 삶을 노래하고 우리 사회주의의 위대한 사업을 노래하는 열정적인 시를 보내주기 바란다. 우리는 또한 시단의 우파분자가 쓴 시나 시단의 일부 우경반동 언론(예를 들어 리우사허의 '초목편'과 '초목편'에 관한 그의 헛소리 같은)에 대한 비판과 반박을 요구한다. 『詩刊』은 앞으로 이 전투를 위해 더 많은 지면을 할애할 것이다. 시인들이여, 전투적인 시를 우리에게 더 많이 보내주시기를!<sup>27)</sup>

26) 위의 책 259쪽.

27) 我們希望全國各地的詩人積極地投入戰鬥，以雄健的歌聲，火熱的諷刺，更猛烈地戰鬥。『詩刊』願意提供它的篇幅給這偉大的政治鬥爭。我們希望詩人們，希望青年歌手給我們寄來反擊右派的詩，諷刺詩和政治詩：寄來歌頌共產黨，歌頌人民共和國，歌頌我們蒸蒸日上的生活，歌頌我們社會主義偉大事業的激情的詩。我們也需要對詩歌界的右派分子所寫的詩和詩歌界的一些右傾反動言論，(例如流沙河的'草木篇'和他的關於'草木篇'的一系列瘋狂叫囂)，進行批判和駁斥。『詩刊』將以更大的篇幅提供給這一場戰鬥。詩人們，請把戰鬥的詩篇給我們多多的寄來吧！1957

7월의 「편집후기」는 정치적 변화가 가져온 편집 방향의 전환을 보여주지만 그로 인한 곤혹 또한 담고 있다. 단순 월별 표기를 해 오던 표지에 ‘反右派鬪爭特輯’이라는 부제를 명기한 7월호는, 향후 전개될 『詩刊』의 투쟁이 ‘우파에 반격을 가하는 풍자시와 정치시’ 창작으로 구체화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6월호만 하더라도 “이제 각종 유포, 각종 체제, 각종 제재의 작품이 모두 게재될 것이며, 좋은 작품이라면 소수민족의 시나 민가, 가사, 구체시도 게재될 것이다. 『詩刊』이 진정 온갖 꽃들이 만개하는 꽃밭이 되기를 희망한다.”<sup>28)</sup>며 쌍백방침에 호응했던 『詩刊』은 이제 완전히 다른 정치적 책임 수행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이는 당시의 모든 지식인들이 새롭게 돌파해야 할 위기적 상황이었다.

시는 보다 직관적이고 선전효력을 가진 反右鬪爭의 도구가 되어야 했다. ‘반우파투쟁특집호’의 발행부터 편집위원 呂劍, 唐祈 등이 우파로 분류될 때까지, 『詩刊』은 즉각적이고 적극적인 정치적 반응을 보였다. 7월호에서 臧克家是 卷頭言을 대신한 「불길 같은 詩句로 발언하라 讓我們用火辣的詩句來發言吧」를 통해 『詩刊』의 변화를 예고한다. 그는 “깃전에 전투의 음성이 울린다”, “시인들이여, 우파에 맞서는 투쟁 속에서 우리 불길처럼 맹렬한 詩句로 발언하자”, “정치적 열정은 시인의 영혼이다. 아름다운 것이 더럽혀지는 것을 보고도, 추악한 낮짜이 음모를 꾸미고 떠들어대는 것을 보고도 애증으로 들끓지 않는단 말인가”, “투쟁의 음성을 듣노라면 시인 동지들이 생각난다”, “정치풍자시가 많아졌다. 이런 시들은 전투의 북소리 같아서, 사람들을 떨쳐 일어나게 한다”며 술회했다. 7월호에는 袁水拍, 田間, 郭小川, 沙鷗, 鄒荻帆, 徐遲, 洪迪, 劉銓勝 등의 반우파투쟁 시가 특집으로 게재되었다. 그러나 같은 호에서 茅盾은 시인의 예술적 수양 제고를 강조하면서 특히 시적 기교의 중요성을 강조<sup>29)</sup>했고, 반우적 관점을 반영한 평론은 8월호에 이르러서야 출현하기 시작했다.

1957년 9월호는 『詩刊』 편집부 역시 반우파투쟁의 회오리를 피해가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투쟁의 창끝은 『詩刊』 내부를 향하고 있다. 「본 간행물 편집부의 반

年 『詩刊』, 7月號, 「編後記」.

28) 1957年 『詩刊』 6月號, 「編後記」.

29) 「眼高手低說起」, 『詩刊』 1957年 7月號.

우파투쟁 反右派鬭爭在本刊編輯部」은 편집부의 투쟁 상황에 대한 보고로, 편집위원 呂劍, 唐祈, 艾靑 등이 비판 받았음을 보여준다. 徐遲와 田間은 별도의 글을 통해 맹렬히 艾靑을 비난하기도 했다.<sup>30)</sup> 呂劍과 唐祈가 우파로 분류되고 艾靑의 反黨 행위가 폭로되었지만 그들의 우파 혐의는 주로 丁玲, 陳企霞와의 모호한 관련성뿐이었다. 9월호에서 黎之는 “용속하고 思想性을 결여한 애정시”를 비판<sup>31)</sup> 했지만 “어떤 시인이 남녀 간의 사랑을 쓰지 않는다면 그는 참으로 이상한 시인이다”라는 파블로 네루다의 「시와 인민 詩和人民」이 같은 호에 게재되는 불균형을 빗기기도 하는데, 이것이 의도된 것이었는지의 여부는 향후의 과제로 남겨 두어야 할 것 같다.

소련의 10월 혁명 40주년 기념호로 기획된 10월호는 ‘慶祝十月革命四十周年’이라는 표제 하에 중국과 소련 시인들의 작품을 집중 수록하였고, 정치색이 강화된 10여 편의 시가 수록되었다. 艾靑의 최근작이 지닌 문제를 비판하고 있는 沙鷗의 평론은 정치 우위의 비평 관점이 지닐 수밖에 없는 한계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11월호 「편집후기」는 반우파투쟁 승리를 선언하면서, 『詩刊』이 수많은 우파 시인들을 색출했으며 그 과정에서의 整頓을 통해 한층 새로워진 시인 隊伍를 형성했음을 강조한다. 또 7월호 이후 詩風이 더욱 ‘健康’해졌다고 자평하면서, 청탁 원고 비율을 조절함으로써 이 같은 기조를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특별히 청년 시인들의 적극적인 투고를 기대한다고 언급한 점은 기존 시인에 대한 암묵적 배제의 의미로 해석될 수도 있는데, 실제로 艾靑을 비롯한 시인들이 이후 『詩刊』에서 사라졌다.

1957년 겨울 경제건설 열기가 고조되면서 ‘대약진’의 先聲이라 할 만한 각종 水利工程가 진행되었다. 그리고 『詩刊』 12월호에는 과장적 분위기의 시 한 편이 출현했다. 「농업생산전선을 향한 대진군 向農業生產戰線大進軍」이라는 이 시는 ‘대약진운동’과 ‘인민공사회’를 암시했고, 1958년 봄부터 전국적인 ‘新民歌運動’이 전개되었다.

1956년과 1957년의 사건들은 견고한 관료주의가 사상의 자유를 어떻게 제한

30) 徐遲, 「艾靑不能爲社會主義歌唱?」, 田間, 「艾靑, 回過頭來吧!」.

31) 「反對詩歌創作的不良傾向及反黨逆流」, 『詩刊』 1957年 9月號.

하는지, 그리고 민주주의에 대한 관료들의 인식이 얼마나 제한적이었는지를 보여주었다. 쌍백운동을 계기로 사회주의의 현재를 반성하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지식인들은 그들의 비판을 수용하고 스스로를 개조하려는 의지가 전혀 없었던 당에 의해 짓밟히고 말았다.

#### 4. 1957년 『詩刊』의 문제작

쌍백운동이라는 특수한 문예 환경 속에서 많은 시인들이 『詩刊』에 신작을 발표했다. 그러나 상반기에 발표된 일부 작품은 1957년 7월 이후의 상황 변화로 예상치 못한 비판에 직면해야 했다. 艾靑의 「칠레 해변에서 在智利的海岬」는 가장 전형적인 사례 중의 하나였다.

창간호는 “이 시는 형상이 아름답고 말할 수 없이 의미심장하다”면서 艾靑의 시가 형상성과 사상성에서 자부할만한 수확을 얻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9월호는 “艾靑의 영혼 깊은 곳이 부패하고 비열하여 ‘시인’이나 ‘인류 영혼의 엔지니어 人類靈魂工程師’라는 영예로운 칭호와는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 근래 그의 창작은 혁명적 정서와 생활의 분위기를 결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미 견고한 독자적 예술 세계를 구축하고 있는 중견 시인을 향한 이 같은 독설에 가까운 비평은 예술적 곤경을 넘어서는 모멸이었다.

편집부는 쌍백방침으로부터 반우파투쟁으로의 정치적 방향 전환을 비평을 통해 실현해야만 했다. 설령 그것이 쌍백방침을 충실히 따른 결과였다 하더라도 과거의 오류를 소급하여 스스로 비판하는 것은 전혀 문제 삼을 일이 아니었다. 다시 말해서 艾靑의 문제는 艾靑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작품을 게재한 『詩刊』 편집부 전체의 문제였다. 5,60년대 편집인들은 단위 체제 하에서 국가의식형태의 감시와 제어를 받을 수밖에 없었고, 그들의 주요한 직무는 문예의 방향을 관리 감독하고 문예정책을 집행하는 것이었다. 그들은 정치적 돌변이 초래할 각종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방법을 확보해야만 했다. 지나치게 시류에 편승한다는 비난

을 받더라도 주류 의식형태의 발언과 同步的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정치적 상식이 었다.<sup>32)</sup> 沙鷗의 평론 「艾青 최근작 비판 艾青近作批判」 역시 이 같은 대응 방식을 단적으로 보여주었던 바, 沙鷗는 艾青의 작품을 잘못 비평한 자신까지 비판하고 있다.

(前略)/그대는 바다를 사랑했고, 나 또한 바다를 사랑했으니/ 우리는 영원히 바다 위를 향해하네// 어느 날, 배 한 척이 침몰했네/ 그대는 마치 희망을 집어 들듯/ 求命 튜브를 집어 들었네// 풍량은 그대를 해변으로 데려 왔네/ 그대는 바다를 지키는 전사처럼/ 이 암초들을 지키고 있네// 그대는 닻을 내리고/ 밧줄을 풀며/ 그대가 지나온 길을 추억하며/ 날마다 바다를 바라보았네// 파블로의 집은/ 해변에 있지/ 창밖은/ 질푸른 태평양// 기이한 집은/ 온통 바윗돌로 쌓아서/ 武士를 가뒀/ 작은 보루 같았네// 우리가/ 뱃사람의 집에 들어서면/ 온통 조개껍질로 뒤덮인 바닥/ 어찌면 어젯밤에 바닷물이 들이닥친 것인지도// (中略) 아이보리 색 상아에는/ 젊은 연인이 새겨져 있지/ 시골 사람 옷을 입고/ 부끄러운 표정으로/ 모든 사랑의 이야기처럼/ 오래고도 새로워라// 권총은 이미 녹이 슬고/ 전투선도 꿈쩍 않으니/ 포도주를 가득 채우고/ 평화를 위해 건배!// (中略) 나는 파블로에게 물었지/ “뱃사람인가?/ 장군인가?/ 그는 말했지, “장군이라네./ 그대처럼/ 하지만, 내 배는/ 이미 실종되었네./ 가라앉았네……”// (中略) // 아니야, 아니야/ 이 집의 주인은/ 총살당한 로르카의 친구/ 수난 당한 스페인의 증인/ 퇴역한 외교관이라네/ 장군이 아니라네.// 밤낮으로 바다를 보며/ 커다란 한숨 같은/ 조롱 같은/ 싸움을 걸어오는 것 같은 파도 소리를 듣는다네// 파블로 네루다는/ 끝도 없는 파도를 보며/ 광산에서 가져 온 언어로/ 낡은 온 세상을 향해 선전 포고를 했네// 응접실 입구 위에는/ 구멍 튜브가 걸려 있네// (中略) // “만약 배가 침몰하면/ 나는 저걸 착용하고/ 바다로 뛰어들 거라네.”// (中略) // 벽난로 불길의 타오르는/ 오늘 밤, 바다는 요란하여라/ 뜨거운 벽난로를 둘러싸고/ 지구의 각 모퉁이에서 온/ 여남은 명 향해의 동반자들이/ 술을 마시며, 향해의 이야기를 나누네 // 여러 나라에서 온 우리는/ 민족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지만/ 우리는 가장 좋은 형제// (中略) // 동틀 무렵, 호루라기 울리면/ 우리 모두는 재빨리 닻줄을 타고 올라/ 돛을 펼치고, 바닷길을 나서리/ 또 다른 세기의 항구로 향해해 가리……<sup>33)</sup>

32) 巫洪亮, 「夾縫生存中的艱難言說—1957: 『詩刊』編後記話語方式微視透視」(『嘉應學院學報(哲學社會科學)』, 第28卷 第1期, 2010), 53쪽 참조.

1954년, 칠레 시인 파블로 네루다의 50세 생일 기념 모임에 초대 받아 그의 집을 방문했던 艾靑은 담담하지만 분방하게 삶의 자유를 노래했다. 그것은 『詩刊』의 창간 정신과도 일맥상통했다. 艾靑은 ‘시인’ 네루다를, 그리고 자신의 조국과 스페인 내전에서 정치적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한 ‘혁명가’ 네루다를 영혼의 항해를 함께 하는 동반자로 신뢰하고 사랑했다. 「칠레 해변에서」는 이국의 친구를 방문한 벅찬 감동, 세계 평화의 이상을 공유하는 시인들 간의 형제애를 간명하게 그려낸 艾靑의 대표작이었다. 그러나 艾靑의 자유로운 기질과 예술 추구는 경직된 국가의식과 괴리를 빚음으로써 “부패한 자산계급의 사상 작풍을 개조하지 못한” 채 “최근 몇 년 동안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러, 당에 대한 원한을 숨기고 헛된 말을 늘어놓으며, 성실히 스스로의 잘못을 검토하기보다는 오히려 동지들이 자신을 공격하고 억압했다며 당을 비방하고 대립했다”<sup>34)</sup>는 비판을 받아야 했다. 응접실 입구에 걸린 구멍 튜브를 보면서 “만약 배가 침몰하면/ 나는 저걸 착용하고/ 바다로 뛰어들 거라네”라며 인생에 담대히 맞섰던 네루다의 의지는 艾靑의 삶에 대한 태도이기도 했다. 艾靑은 현실의 부조리에 굴하지 않고 “또 다른 세기의 항구로 항해”해 갔고, 20여 년 후 다시 詩壇으로 돌아왔다.

쌍백운동의 열기가 고조에 달했던 1957년 5월호 『詩刊』에는 시인 穆旦의 운명

33) (前略)你愛海,我也愛海/我們永遠航行在海上//一天, 一只船沉了/你檢回了救命圈/好像檢回了希望//風浪把你送到海邊/你好像海防戰士/駐守着這些礁石//你拋下了錨/解下了纜索/回憶你所走過的路/每天了望海洋//巴勃羅的家/在一個海岬上/窗戶的外面/是浩森的太平洋//一所出奇的房子/全部用岩石砌成/像小小的碉堡/要把武士囚禁//我們走進了/航海者之家/地上鋪滿了海螺/也許昨晚有海潮//(中略)//米黃色的象牙上/刻着年輕的情人//穿着鄉村的服裝/帶着羞澀的表情/像所有的愛情故事/既古老而又新鮮//手槍已經鏽了/戰船也不再轉動/請斟滿葡萄酒/爲和平而干杯!//(中略)//我問巴勃羅: “是水手呢?還是將軍?”他說: “是將軍/你也一樣:/不過, 我的船/已失蹤了,/沉沒了……”//(中略)//都不是, 都不是,/這房子的主人/是被槍殺了的洛爾伽的朋友/是受難的西班牙的見證人/是一個退休了的外交官/不是將軍//日日夜夜望着海/聽海濤像在浩嘆/也像是嘲弄/也像是挑釁//巴勃羅·聶魯達/面對着萬頃波濤/用鑛山裏帶來的語言/向整個旧世界宣戰//在客廳門口上面/挂了救命圈/(中略)/要是船沉了/我就戴上它/跳進了海洋。”//(中略)//壁爐裏火焰上升/今夜,海上喧嘩/圍着燒旺了的壁爐/從地球的各個角落來的/十幾個航行的伙伴/喝着酒,談着航海的故事//我們來自許多國家/包括許多民族/有着不同的語言/但我們是最好的兄弟//(中略)//拂曉之前,要是哨子響了/我們大家將將快地爬上船纜/張起船帆,向海洋起程/向另一個世紀的港口航行…… 艾靑, 「在智利的海岬」중에서, 『詩刊』 1957年 創刊號.

34) 田間, 「艾靑, 回過頭來吧!」, 『詩刊』1957年 9月號.

을 비극으로 몰아간 시 「장송곡 葬歌」이 발표되었다. 귀국 이후 『紅樓夢』 문제에 관한 南開大學 토론회로 인해 이미 정치적 곤경에 처해 있었던 穆旦은 지식인의 사상 개조 필요와 낡은 자아와의 결별 의지를 「장송곡」과 「구십구가 쟁명기 九十九家爭鳴記」(1957년 5월 7일자 『人民日報』)로 밝히려 했다.

너는 정녕 영원히 이별했네, 나의 친구?/ 나의 그림자, 내 지난날의 자신?/(中略)// 너는 또 어디를 향해 신음하고 웃는 것인가?/ 너의 웃음조차 그리 비천하니./ 네 수많은 이야기에 우여곡절이 있다 해도/ 그림자가 어찌 햇볕과 맞서랴?/(中略)//“오, 매장하라, 매장하라, 매장하라!”/ 나는 참을 수 없어 자신에게 외치네./ 이 죽음의 한 모퉁이에서/ 나는 너무 오랫동안 떠돌고 막막했으니/ 내 눈물로 몸을 씻어./ 참회의 기쁨을 느끼게 하라.// 이렇게, 어둡고 긴 통로를 새처럼 빠져나와/ 나는 햇볕과 그대들, 친애하는 독자들을 만나리니/ 이 시대가 얼마나 많은 영웅의 서사시를 썼는지 알 수 없으나/ 나는, 이 가난한 마음엔! 자신의 장송곡뿐이네./ 부를 만한 노래 많지 않으니, 이것은 결국/ 낡은 지식분자가 겪어 온 삶의 곡절/ 그의 짐은 아주 무거워, 그대들은 이미 보았네, 그대들과/ 함께 전진하려는 그의 결심과, 여기에 드러나는 그의 기쁨을./ 이 시만을 보고 얘기한다면./ 누군가는 그것이 그리 열정적이지 않다 싫어할 지도 모르니/ 새로운 사물에 대한 열망이 깊지 않고, 낡은 것에 대한 증오가 많지 않다고/ 바로 이 때문에……나의 장송곡은 반만 부른 셈이니./ 나머지 절반은, 동지들이여, 내 삶이 바뀌도록 도와주시기를.<sup>35)</sup>

99행에 달하는 「장송곡」은 시인의 내면에서 진행되는 낡은 자아와의 ‘이별’과 자기 ‘매장’이 얼마나 절박한 것인지를 보여준다. “이 시(「장송곡」)는 우리 지식인들의 사상 개조와 낡은 자아와의 결별에 대한 다짐을 쓴 것이네. 그 시절 사람들은

35) 你可是永別了, 我的朋友?/我的陰影, 我過去的自己?/(中略)//你還向哪裏呻吟和微笑?/連你的微笑都那麼寒儉./你的千言萬語雖然曲折./但是陰影怎能碰得陽光?/(中略)//哦, 埋葬, 埋葬, 埋葬!/我不禁對自己呼喊:/在這死亡底一角,/我過久地漂泊, 茫然:/讓我以眼淚洗身./先感到懺悔的喜歡./就這樣, 像只鳥飛出長長的陰暗甬道./我飛出會見陽光和你們, 親愛的讀者:/這時代不知寫出了多少篇英雄史詩,/而我呢, 這貧窮的心! 只有自己的葬歌./沒有太多值得歌唱的: 這總歸不過是/一個舊的知識分子, 他所經歷的曲折:/他的包袱很重, 你們都已看到: 他決心/和你們并肩前進, 這兒表出他的歡樂./就詩論詩, 恐怕有人會嫌它不够熱情: /對新事物向往不深, 對舊的憎惡不多./也就因此……我的葬歌只算唱了一半./那後一半, 同志們, 請幫助我變為生活. 穆旦, 「葬歌」중에서, 『詩刊』1957年 5月號.

조국에 대한 봉사만을 생각했고 스스로를 개조해야 한다고 느꼈지. 자신은 결합투성이여서 시대의 발걸음을 따라가지 못할까봐 두려워했어.”<sup>36)</sup>리는 만년의 술회가 보여주듯, 穆旦을 지배한 것은 ‘결합투성이 자아’로 ‘시대의 발걸음’을 쫓아야 한다는 ‘두려움’이었다. 「구십구가 쟁명기」는 당시의 일반적인 회의 광경을 풍자적으로 묘사한 것으로 쌍백운동이 급류를 탄 시기에 발표되었다. 穆旦은 당이 요구하는 비판자가 되어야 한다는 당위성 속에서 자기 검열적 태도로 시를 썼지만 이 두 편의 시로 인해 그는 파멸에 가까운 대가를 치러야 했다.

1957년 9월부터 『詩刊』과 『人民文學』에는 穆旦의 「구십구가 쟁명기」와 「장송곡」을 비판하는 글이 잇달아 게재되었다. 黎之의 「시 창작의 불량 경향과 반당 역류에 반대함」은 쌍백운동 시기에 출현한 ‘불량 경향의 사례로 穆旦의 시를 거론하면서 「장송곡」은 마치 시인 자신의 암울하고 비판적인 심정에 대한 解剖 같다고 비판했고, 이처럼 암울한 정서를 기초로 현실생활을 왜곡하고 新사회를 공격한 증거가 바로 「구십구가 쟁명기」라고 했다.<sup>37)</sup> 1958년 『詩刊』 8월호에는 「穆旦의 ‘장송곡’은 무엇을 매장했나? 穆旦的葬歌埋葬了什麼?」(李樹尔)라는 글이 게재되었다. 이 글은 穆旦의 시가 표면적으로는 ‘낡은 자아(舊我)’를 매장하는 듯 보이지만 사실은 자산계급 개인주의를 노래하고 자산계급 사상을 선전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해 12월 25일자 『人民日報』는 「백가쟁명」을 왜곡한 시 — ‘구십구가 쟁명기」에 대한 비평 一首歪曲‘百家爭鳴’的詩一對‘九十九家爭鳴記’的批評(戴伯健)을 통해 穆旦의 시의 정치적 함의와 문제를 비판했다. ‘九十九家爭鳴記’라는 제목이 보여주듯 ‘爭鳴’하는 ‘九十九家’에 진정으로 함께 ‘울어아(鳴)’ 할 ‘한 사람’은 포함되어 있지 않고, 오히려 스스로를 배제한 채 ‘爭鳴’ 중인 타인을 조롱했다는 것이었다.

쌍백운동으로 비등해진 지식인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한 새로운 운동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穆旦과 그의 시는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정치적 犧牲이 되어야 했다. 穆旦은 1958년 1월 4일자 『人民日報』에 「크게 배웠습니다 我上了一課」

36) 郭保衛, 「書信今猶在, 詩人何處尋」, 『一個民族已經起來』(江蘇: 江蘇人民出版社, 1987) 175쪽 참조.

37) 1957년 『詩刊』 9월號.

라는 자아비판을 게재하여 작품이 의도와는 다른 결과를 낳은 것은 전적으로 자신의 사상 수준이 낮은 탓이라고 인정했다. 이로써 穆旦의 시인으로서의 자아, 지식인으로서의 자아는 완전히 '매장'당하고 말았다.

사랑스런 손길을 내미는 봄바람은./ 부드럽고 힘 있게/ 깊은 잠을 깨운다. 괜한 망설임 없애버리니/ 모든 이들 새로운 믿음을 발견하고 기뻐한다.// 풀뿌리에 불어온다, 나이트에 불어 온다./ 사상의 응어리와 부담에 불어 온다/ 얼음 위에 그림을 그리고, 얼굴에 미소 주름 더한다.// 꽃이란 꽃은 모두 피어나고, 온갖 싹이 돌아난다./ 어루만지는 이 손을 환호하며, 가장 좋은 것으로./ 모든 것을 다시 창조한다, 옛 것은 이미 묻혀버렸다.// 얼마나 많은 밤을 어둠 속에서 고통의 밤을 보냈던가./ 부수고, 만들고, 다시 부수고, 끝내 껍데기를 뚫고 나와./ 다만 초록 잎을 돋보이게 하려고, 색채와 향기를 바친다.//(中略)// 노래하고, 또 노래하는, 유난히 흥분한 저 새들은./ 과거의 머뭇거림이 이미 우습게 느껴지고./ 노래 소리를 찾기 위해, 기쁨을 억누르지 않는다.// 봄바람을 따라, 큰 소리로 한 번 노래해 보면./ 가지 사이에서 부서지는 햇빛에는 더 이상 만족할 수 없어./ 저 구름 없는 파란 하늘에 뜬 태양을 찾아가리.// 동쪽에서 호응하고, 서쪽에서도, 남쪽에서도./ 흥분한 눈빛이 나비처럼 반짝인다./ 재잘대는 호수도 끼어들어 얘기한다.// 따뜻해졌어! 봄이 왔어! 도처에서 환호한다./ 신식 쟁기는 검은 흙 덩이를 뒤집고./ 사람들은 공원으로 쏟아져 나온다, 교외 숲으로 쏟아져 나온다.// 신기한 봄빛 그림 한 점이 완성된다./ 새로운 분위기의 교향악이 울린다./ 누군가, 구구절절 산뜻한 시를 낭송한다.// 봄바람은 새 생명의 원천, 초록과 노랫소리의 핵심./ 봄바람이 지나간 곳마다 노래한다/ “새로운 활력이 생겼네! 나의 새 생명”<sup>38)</sup>

38) 春風伸出慈愛的手,溫柔而有力./推醒了沉睡的,抹掉不必要的猶豫./使一個個發現新的信心而大歡喜.//吹過草根,吹過了年輪./吹過思想的疙瘩和包袱./在水層上面圖案,在臉上加深笑紋.//是花的都在開,有芽的都綻出來./歡呼這只愛撫的手,拿出最好的./一切從頭創造,過去的已經深埋.//在黑暗中摸索了多少艱苦的日子./打破,形成,又打破,最後沖出硬殼./獻出顏色和香味,還有只為襯托的綠葉.//(中略)//又唱了,又唱了,那特別興奮的鳥群./對過去的遲疑已覺得好笑./爲了找到新歌聲,抑不住太高興.//試一聲,大聲些,聽從着春風/不再滿足於枝葉間的碎粒陽光./投向那雲稀太陽高的藍空.//東邊的響應了,還有西邊的,南邊的./興奮的眼光像蝴蝶般閃爍./多嘴的湖水也搶着發表意見.//暖起來!春天到了!/到處在歡呼./新式步犁把第一塊黑土翻開./人群涌向公園,涌向郊外的林場.//一幅着色奇妙的圖畫完成了./一曲新風格的交響樂奏起來./一首句句清新的詩,有人在朗誦着.//春風是新生命的源泉./綠和歌聲的核心./它吹過的地方,一切都在唱:“我有了新活力!我有了新生命!”杜運燮,「解凍」중에서, 1957年『詩刊』5月號.

1957년 『詩刊』 5월호에는 杜運燮의 시 「해동 解凍」도 게재되었다. 쌍백운동 당시 전혀 문제되지 않았던 그의 시는 어떤 의미에서 지극히 평범한 내용과 형식으로 쌍백방침에 호응한 것에 불과했다. '봄바람' 속에서 '노래(鳴)하는 새'와 '피어나는(放) 꽃'들의 이미지는 재론의 여지가 없는 쌍백의 상징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58년 『詩刊』 8월호는 독자의 의견을 빌어 杜運燮의 「해동」이 처음부터 내포하고 있었던 반당, 반사회주의적 의도를 비판했다.

편집부가 정리한 「작년 본 간행물에 대한 독자 의견 讀者對去年本刊部分作品的意見」에 따르면 “四川 瀘州的 張紹先 동지는 작년에 보내 온 편지에서, 반년 이래로 우파분자의 언론과 시문에 자주 출현했던 ‘解凍’이라는 말은 결코 낯설지 않다. 그들은 해방 후의 몇 년간을 ‘겨울’에 비유했다. 그들은 신 사회를 증오하고 공산당을 증오하면서 그 후 몇 년 간 당이 영도한 사회주의 건설과 혁명을 그들에 대한 커다란 압박으로 여겼다. 이 때문에 그들은 올해 상반기 당의 정풍 기회를 이용하여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구실로 ‘봄이 왔네’, ‘해동 되었네’라며 떠들어댔다. 그들의 이른바 모두가 기뻐하며 능력을 발휘한다는 것은 사실 당의 영도를 뒤집고 사회주의 사업을 파괴하려는 것에 불과하며, ‘해동’은 그들의 이 같은 행동을 개괄하는 述語다. 그러나 杜運燮는 이것을 오히려 엄청난 열정이라 표현하면서 그것을 위한 찬가를 쓴 것이다”, “꽃이란 꽃은 모두 피어나고, 온갖 싹이 돋아난다..... 얼마나 많은 밤을 어둠 속에서 고통의 밤을 보냈던가,/ 부수고, 만들고, 다시 부수고, 끝내 꺾데기를 뚫고 나와.....”라던가 “과거의 머뭇거림이 이미 우습게 느껴지고.....”는 당의 백화제방 방침에 대한 왜곡과 과거에 대한 전반적 부정의 태도 등 작가의 자산계급 반동사상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 비판의 주요 내용이었다. 편집부는 湖南 宣化和 上海市의 독자도 비슷한 편지를 보내왔다고 밝혔다.

그에 비하면 汪曾祺의 「이른 봄 早春」에 대한 독자들의 불쾌감과 비판은 오히려 공감의 갈 정도다.

오색 깃발/ 바람에 나부끼는 깃발은,/ 묶어 놓은 물결 같아라.// 살구꽃  
/ 살구꽃은 조각조각 꽃잎을 뒤집는다...../ 누군가 꽃잎을 쏟아 놓은 것  
같은 나무 위에서.// 이른 봄/ 신록이 아롱아롱, 가지 끝을 떠다닌다./ 조

금도 나뭇잎을 닮지 않았다.....// 황혼/ 퇴근 무렵./ 청회색 황혼./ 길가의  
 질푸른 측백나무./ 자전거를 타고 가는 소녀의 핑크 빛 모자./ 오렌지색  
 전차 불빛./ 홀연히 가로등에 불이 들어오면./ (살짝살짝 손뼉을 치는 것  
 같아.....)/ 공기 속으로 퍼져가는 봄날의 촉촉함.<sup>39)</sup>

“長春의 葛以連, 孫鳳蘭 동지는 편집자에게 보내 온 편지에서 이처럼 회삽하고 모호한 작품은 『詩刊』에 게재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비난했다. 廣州의 茅奔原 동지는 다시 편지를 보내 와서 과거에 그는 시를 감상하는 것을 고상한 향유라고 생각했는데 ‘이른 봄’을 읽는 것은 오히려 골칫거리라고 했다. 北京 護國寺 李廣은 ‘이른 봄’을 읽어도 이해할 수 없어 편집자에게 편지를 보냈다면 ‘이것은 어떤 형식의 시인가?’, 시를 읽고도 왜 ‘망연하고 이해할 수 없는가’를 물었다. 人民解放軍 127療養院 包戊己 동지는 ‘이른 봄’의 작가가 독자들에게 주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라면서, ‘당시 우리는 화가 났다, 작가가 이런 시를 쓴 것은 그저 몇 사람이 보고 즐기게 하려는 무의미한 유희가 아닌가’라고 했다.” 편집부는 독자들의 비판을 직접 인용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 암울한 정서로 충만한 시가 독자들 사이에 강렬한 반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견해를 첨언하고 있다.

독자들의 반응은 당연한 것인지도 모른다. 당시의 정치적 환경과 문예 정책은 工農兵 독자층의 확대를 지향했고, 주제 사상이 명확하고 대중이 이해하기 쉬운 작품이 주류를 형성하고 있었던 바, 이미지즘을 자유롭게 운용하고 있는 「이른 봄」을 이해하고 즐길 수 있는 독자층은 실제로 매우 제한적이었을 것이다. 쌍백의 숨겨진 의도를 파악하기 힘든 ‘이른 봄’, 정치적 계절의 향방은 차가운 바람에 휘날리는 ‘깃발’처럼 선명하지만 상징적일 뿐이었다. “아롱아롱 가지 끝을 떠다니”면서도 “조금도 나뭇잎을 닮지 않은” ‘신록’이야말로 정치적 ‘이른 봄’의 상징이다. ‘이른 봄’의 모든 ‘기운’은 일정한 시간이 지나야 구체적이며 실제적인 모습을 드러낸다. 그

39) 彩旗/當風的彩旗./像一片被縛住的波浪./杏花/杏花翻着碎碎的瓣子.....彷彿有人拿了一桶花瓣撒在樹上./早春/(新綠是朦朧的,飄浮在樹杪./完全不像是菓子.....)//遠樹的綠色的呼吸./黃昏//青灰色的黃昏./下班的時候./暗綠的道旁的柏樹./銀紅的騎車女郎的帽子./橘黃色的電車燈./忽然路燈亮了./ (像是輕輕地拍了拍手.....)/空氣裏擴散着早春的濕潤. 汪曾祺, 「早春」 중에서, 1957年『詩刊』6月號.

런 의미에서 “이것은 매우 악랄한 작품이다. 신 중국 봄날에 대한 작가의 암울한 정서를 표현하고 있다. 작가의 묘사 속에는 봄날의 아름다운 풍경을 찾아 볼 수 없으며, 인민에게 쏟아지는 봄날처럼 찬란한 사회주의의 성취는 더더욱 찾아 볼 수 없다. 단지 신 중국 봄날 풍경(깃발, 살구꽃, 황혼, 전차)에 대한 구구절절 처량 맞은 회색빛 정조를 볼 수 있을 뿐이다”라는 지적은 시인의 불안하고 복잡한 심리를 꿰뚫는 절묘한 一喝로 느껴질 정도다.

문혁 이후 呂劍은 “公劉의 「늦게 핀 장미 遲開的薔薇」는 위험을 무릅쓰고 발표한 것이었다. 당시 ‘애정’은 문예 작품에서 금지구역이었다.”<sup>40)</sup>라고 회고한 적이 있다. 같은 해 四川에서 창간된 『星』이 수록 시 「입맞춤 吻」으로 인해 대대적인 비판에 직면해야 했던 사례에 입각해 볼 때, 「늦게 핀 장미」의 게재는 편집부의 과감한 결단이 필요한 사안이었음에 분명하다.

오직 한 사람만이 그것을 깨울 수 있네// 내 마음 속에는/ 사랑이 잠자고 있네/ 오직 한 사람만이 그것을 깨울 수 있지만./ 나는 그 사람이 누군지 알 수 없네.// 하늘에 반짝이는 수많은 별들// 하늘에 반짝이는 수많은 별들./ 내 별은 오직 하나/ 반짝여라, 내 별이여/ 반짝여라, 내 운명의 등불이여/ 내 충실한 팔로 널 받쳐주리./ 너는 영원히 떨어지지 않으리.....// 늦게 핀 장미// 이미 한여름은 지나고./ 쓸쓸한 화원에는/ 늦게 핀 장미 한 송이 뿐/ 그걸 꺾으러 가자, 아가씨여/ 앞섰에는 말고, 꽃은/ 그대 메마른 가슴 가까이 두기를.....// 부끄러운 희망// 부끄러운 희망은, 겁 많은 툰드라의 사슴들처럼./ 어루만지면 놀라 도망가 버리네./ 멀리, 더 멀리, 끝내 그림자도 보이지 않네.// 말 못할 아픔만, 폭군처럼/ 내 마음을 짓밟네/ 나를 고문하지 마, 난 이미 죄를 인정했으니/ 비겁이야말로, 모든 잘못과 불행이었네.<sup>41)</sup>

40) 呂劍, 「未完的回憶」, 『詩刊』 1976年 第1期.

41) 只有一個人能喚醒它//我的心房裏./愛情在酣睡./只有一個人能喚醒它./我不知道這個人是誰.//天上的繁星有千萬顆/天上的繁星有千萬顆/只有一顆屬於我:/照耀吧,我的星辰!/照耀吧,我的命運的燈!/我以堅貞的手臂將你捧住./你就永遠不會墜落.....//遲開的薔薇//盛夏已經逝去./在荒蕪的花園裏./只剩下一朵遲開的薔薇:/摘了它去吧,姑娘./別在襟前,讓它/貼近你的胸膛枯萎.....//羞澀的希望/羞澀的希望./象苔原上膽小的鹿群./竟因愛撫而驚走逃遁./遠了,更遠了,終於不見踪影.//只有一片隱痛,宛如暴君/蹂躪着我的心:/莫要拷問我,我已經招認: /怯懦,這便是全部的過錯和不幸. 公劉, 「遲開的薔薇」, 1957年 『詩刊』 2月號.

黎之는 시의 건강한 발전을 저해하는 ‘쌍백운동’ 시기의 ‘不良傾向’에 맞서 사회주의 사업을 보위하고 반당 반인민적 독초에 투쟁할 것을 역설하면서 『星星』 창간호에 드러난 ‘色情的’인 경향이아말로 ‘반당’적이고 불량한 정서임을 강조했다. 『星星』이 수록한 「입맞춤 吻」은 자산계급의 저급하고 용속한 감정을 팔아먹은 대표적 사례라고 했다. 黎之는 그 밖의 사례를 통해서도 ‘애정시’를 집중 공격했고, 『詩刊』 1957년 2월호에 발표되었던 「늦게 핀 장미」 역시 “공허하고 음침한 감정의 시로, 사람들에게 퇴폐적이고 애상적인 느낌을 줄 뿐”이라면서, 公劉의 과거 풍격과 어울리지 않는다고 했다.<sup>42)</sup> 인류의 보편적 관심사이자 영원한 예술적 주제일 수밖에 없는 사랑을 금기시하는 것이 창작의 ‘건전성’을 담보한다는 이 같은 사고는 문혁이 종결될 때까지 지속되었다. 시인들은 극도의 불안과 심리적 위축 속에서 스스로를 개조하고 참회할 수밖에 없었다.

## 5. 결론

작년 ‘백화제방’의 문예방침은 따스한 봄바람처럼 창작의 고조를 격동시켰다. 시인들은 자신의 체험에 입각하여 각종 제재, 각종 양식의 시를 썼다. (中略)작년 여름 자산계급 우파분자들이 당의 整風을 돕는다는 핑계로 맹렬히 진공해왔다. (中略) 이 투쟁은 시인들에게 있어 엄혹한 시련이었으며 많은 ‘시인’들이 우파의 진창으로 굴러 떨어졌다. 그들은 당과 사회주의에 반대했다. 창작과 이론에 있어서 문예는 정치를 위해 복무해야 함을 부정했고, 시대의 主調와 重大主題를 부정했다. 퇴폐적이고 감상적이며 개인주의적인 몰락한 정조의 ‘시’를 써서 인민에게 해악을 끼쳤다.<sup>43)</sup>

『詩刊』의 창간을 주도하고, 기존의 편집 관행을 일신함으로써 시단에 활력을 불어 넣으려던 主編 臧克家是 1957년을 우파들의 퇴폐, 감상, 반당 반사회주의적 毒草에 맞서 ‘위대한 사회주의 건설’을 진행한 해로 개괄한다. 그해에 유례없이 다양한 제재와 양식이 시도되었던 것도 ‘백화제방의 문예방침’ 때문이었으며, 그럼에

42) 黎之, 「反對詩歌創作的不良傾向及反黨逆流」, 1957年『詩刊』9月號.

43) 臧克家, 「1957年的詩歌創作的輪廓—1957年詩選“序言”」, 1958年『詩刊』4月號.

도 불구하고 '정치를 위한 복무'라는 문예의 기본 임무가 결코 망각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준 계기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같은 글에서 臧克家是 "제재는 광범했고 풍격 또한 다양했다. 애정시도 있고 풍경의 일면도 있어서 그것에 내재된 아름다운 그 무엇이 인간의 건강하고 발전적인 정감을 불러일으켜 자꾸 읽고 싶게 만든다"는 몇 마디를 덧붙이고 있는데, 관방적인 관점에 입각하여 1957년 『詩刊』의 투쟁성과를 개괄하면서도 쌍백의 자유주의가 가져온 긍정적 영향을 완전히 무시하거나 매도하지는 않았다. 이는 스스로 시인이면서도 국가의 예산 지원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편집자로서의 臧克家가 보여 줄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모습이었을 것이다. 표면적으로는 반우파 투쟁의 의미를 강조하고 위대한 사회주의 건설을 향해 나아갈 것을 독려하는 관방 지식인의 결의로 보이지만, 각고의 노력으로 실현된 『詩刊』 창간의 감격과 짧았지만 강렬했던 자유의 성과에 대한 언급을 포기할 수 없었던 지식인의 고뇌가 응축된 몇 마디로 추측해 볼 수 있다.

부단히 변하는 권력의 요구에 부합하면서 현실적 가능성 속에서 문학과 자이를 실현하려 했던 臧克家의 모습은 근본적으로 칼자루를 쥘 수 없는 중국 지식인의 또 다른 전형이었다. 아무리 자이를 개조하고 참회하더라도 영원히 따라 잡을 수 없는 정치적 요구는 지식인들을 자포하게 하거나 순응케 했고, 결국 진심에서 출발했던 그들의 참회는 끝없는 생존의 위협 속에서 변질될 수밖에 없었다. 陳思和가 말했듯이, 1957년 이후의 작품들은 참회의식과 참회자 사이에 괴리현상을 빚으면서 작품 속의 참회는 더 이상 지식인의 진지한 감정의 산물이 아니라 허위와 눈가림으로 변질되고, 지식인의 죄악을 고백하는 '참회하는 인간'은 참회를 위한 참회, 생존을 위한 참회를 되풀이할 뿐이었다.<sup>44)</sup> 1957년 『詩刊』의 의미와 한계 역시 독립적인 존재로서의 가치를 상실해 가는 지식인의 좌절이라는 관점에서 새롭게 파악될 수 있을 것이다.

44) 진사화(陳思和)지음, 한국외대 중국현대문학연구회 옮김, 『20세기 중국문학의 이해』(서울: 청년사, 1995), 233쪽.

〈參考文獻〉

- 1957年『詩刊』1-12月號,北京:人民文學出版社,1957.
- 連敏,「在詩與意識形態之間徘徊—初創期的『詩刊』研究」,北京:『詩探索』,2010年第3期.
- 連敏,「特定年代的詩歌生產—『詩刊』(1957-1964)作為研究對象的提出與思考」,『中國詩歌研究』,2011年 第1期.
- 張立群,「一个刊物与一个時代—論時代語境中的1957至1964年『詩刊』」,『文藝理論与批評』2006年 第2期.
- 鄭翔,「『詩刊』(1957-1964)的基本內容和意識形態性研究」,『揚子江評論』2009年第4期.
- 巫洪亮,「夾縫生存中的艱難“言說”—1957:『詩刊』“編后記”話語方式微觀透視」,『嘉應學院學報』2010年 第1期.
- 陳艷,「由對詩人的重估到對新詩史的重構—從『詩刊』看五四以來的新詩傳統在五、六十年代的命運」,『濰坊學院學報』,2006年 第1期.
- 子張、呂劍,「『詩刊』創刊前后」,『新文學史料』2010年 第1期.
- 白婉清,「難忘在『詩刊』的日子」,『詩刊』2006年 第15期.
- 連敏,『詩刊』(1957-1964)研究』,首都師範大學,博士論文,2007.
- 常慧敏,『位移:1957至1964年『詩刊』詩歌在文化弱勢中的變異抉擇』,山東大學,碩士論文,2006.
- 鄭翔,『詩刊』(1957-1964)的意識形態性研究』,四川師範大學,碩士論文,2005.
- 謝冕,『浪漫星云』,鑛柱:廣東人民出版社,1999.
- 劉福春,『新詩紀事』,北京:學苑出版社,2004.
- 로드릭 맥과커 위음, 김재관 정해용 율김, 『중국현대정치사』, 서울: 푸른길, 2012.
- 모리스 마이스너 지음, 김수영 율김, 『마오의 중국과 그 이후 1』, 서울: 이산, 2004.
- 진사화(陳思和) 지음, 한국외대 중국현대문학연구회 율김, 『20세기 중국문학의 이해』, 서울: 청년사, 1995.
- 첸리첸 지음, 길정행 신동순 안영은 율김, 『망각을 거부하라 - 1957년학 연구 기록』, 서울: 그린비, 2012.

〈中文提要〉

在1957年创刊的『诗刊』是中国当代文学史上第一个诗歌专门刊物。它是以中国作家协会直属刊物的地位，从创刊时期一直能够受到党与领导者的关心和支持，不但对文学界的影响力强大，而且一般读者和全社会对它的期待也很大。

『诗刊』的创刊与1956, 57年当时中国政治环境具有非常紧密关系。以党的‘双百方针’引起知识分子和社会各个阶层的支持，文艺界也计划对文艺政策的一定调整而提供相对自由的工作条件。通过主编臧克家和几位编辑的筹备工作，『诗刊』在1957年创刊。创刊号包括毛泽东的书信和十八篇旧体诗词，也收录了老诗人艾青与冯至的新作及智利诗人聂鲁达的两篇翻译诗歌。『诗刊』创刊号最引人注目的就是它的『编后记』，主编臧克家在『编后记』明显地阐述了，『诗刊』按照读者读到好诗的愿望，今后能够团结，鼓舞全国的诗人们来创作出优美的作品，以满足读者的渴望。

『诗刊』的基本编辑原则维持到1957年上半年，尤其是5, 6月号最集中地收录各种题材和流派的诗歌，譬如5月号里有袁水拍的『讽刺诗三首』、穆旦的『葬歌』、杜运燮的『解冻』，还有老舍的理论文章『谈诗』。6月号的头目篇就是王统照的书信『至克家』，他在这篇短短的文章里强调了诗歌与音乐性的和谐。6月号也刊登了汪曾祺的诗歌『早春』。

从反右派运动的开始，『诗刊』的编辑方向和内容变为完全两样。『诗刊』7月号以‘反右派斗争特辑’的名目来开始反右运动，主编臧克家在该刊的头目篇『让我们用火辣的诗句来发言吧』，极力强调诗歌为政治服务的任务及爱护党，爱护社会主义的真挚热情。从此以后『诗刊』编辑工作上的自由与活力逐渐减少而消灭，在上半期发表作品而受到读者欢迎的很多诗人避免不了严酷的政治批判，成为所谓‘右派’。

關鍵詞: 詩刊, 編輯後記, 雙百方針, 反右派鬭爭, 知識人, 希望, 絕望, 爲政治服務

이 논문은 2016년 1월 17일에 접수되어 2016년 2월 11일에 심사가 완료되고 2016년 2월 11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